

간호대학생의 융합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턴십 체험

오금숙¹, 이미경^{2*}

¹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한중대학교 간호학과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Geum-sook Oh¹, Mi-kyung Lee^{2*}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s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요약 최근 교육형태가 융합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바,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산업체와 학교간의 융합프로그램 인턴십 참여를 통해 경력을 탐색하고 인식하며, 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간호대학생 14명을 심층면담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턴십 경험은 4개의 범주와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4개의 범주는 인턴십 참여 동기,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과정, 경력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 경력에 대한 인식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효과적인 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조직 구성원과의 소속감 증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조직의 체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Key Words** : 융합프로그램, 인턴십, 간호대학생, 경력탐색, 경력인식, 근거이론방법

Abstract Recently, the tendency in the education system orients to developing people of interdisciplinary abil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career process and to aware the career through internship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effect of convergence program.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14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convergence program at various medical organizations. Collection data was analyzed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at Internship Experience was four categories and 12 themes. Four categories are participation motivation internships, Career Exploration process through internship, various learning for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awareness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 convergence program,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s in organizations are provided and organizational system support is needed.

• **Key Words** : Convergence Program, Internship. Nursing student. Career exploration. Career Awareness. Grounded Method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현장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 일반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기대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인해 간호사의 역

*교신저자 : 이미경(leemkkn@gmail.com)

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에게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는 비용효과적인 경영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호사의 서비스제공과 비용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간호학의 핵심인 간호실무 분야이다[1]. 간호실무 분야에서의 능숙하고 효과적인 간호사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융합프로그램으로 의료기관내의 간호교육과 간호대학의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의 간호교육 부서도 간호의 질과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무교육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에서도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훈련인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실습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간호학생의 경우 융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제도의 일환으로 인턴십 과정을 지원하여 심도 깊은 현장실습 및 그 조직문화를 체험하기도 하며 조직원과의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기도 한다.

간호 인턴십은 1963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병원에 대한 신규간호사의 적응력과 생산력 향상과 병원이 미지를 향상시켜 비용절약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 국내에서는 1995년 처음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 인턴십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하였고[3], 간호 인턴십 과정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4]. 2013년 현재 간호 인턴십 프로그램은 서울아산병원을 비롯 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의 병원에서 계속되고 있고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5,6]. 최근에는 어학과 전공을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실습과 어학 연수를 겸하여 해외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7].

간호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규간호사의 임상적 응력을 높이는데 있지만, 간호학생에게 적용하면 학생간호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연결시켜 실무를 익히고 향상시킬 수 있고[2,8], 이들의 진로결정, 직업관 및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2,9]. 실제 국내병원들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간호현장에 대한 심화된 이해 및 체험학습기회를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0].

학습측면에서의 인턴십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경험을 하는 현장실습과 직업세계를 알아감으로써 경력을 준비하는 경력탐색의 2가지 측면이 있다. 전자의

경우 대학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활용해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후자는 직무, 직업, 조직과 같은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얻는 지식을 자아개념에 부합시켜가는 경력탐색과정이다[11].

현재 여러 분야에서 융합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졸업을 앞둔 보건계열 학생에게 융합교육인 임상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 적용 시 실무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교육자, 임상실무자, 학교, 교육병원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12] 현재 실습이 가능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여러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렇듯 현장실습이 중요한 간호실무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영역에서의 인턴십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실태조사나 실습만족도에 관한 극소수의 연구[14,15]가 진행되었으며, 인턴십 효과인 직무만족 등에 관련된 연구도 박해립[16]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체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인턴십 참여동기와 경력탐색을 통한 직업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의 목적

간호대학생의 융합프로그램으로 인턴십 참여과정을 통해 그들의 인턴십 참여동기와 경력탐색과정을 통한 자아개념 및 간호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체험 속에 전개되는 다양한 상호작용,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 경력인정에 대한 자가 평가가 간호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융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체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북도내 4년제 C대학과 강원도 내 4년제 H대학의 간호대학생 중 수도권의 간호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그에 대한 체험과 느낌을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총 14명을 모집하였다. 참여자는 남성 2명, 여성이 12명이었으며, 참여기관은 5곳으로 국립암센터 6명, 서울아산병원 4명, 삼성의료원 2명, 국립의료원 1명과 명지대병원 1명이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주제, 연구목적 및 연구절차를 설명하였으며, 면담자료는 녹음이 되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인용할 것이며, 인용 시에는 개인적 신분이 드러날 세부사항은 배제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과 연구 후 자료를 모두 파괴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료수집에 대한 사례를 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루어졌다. 개방적 코딩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했던 첫 번째 참여자의 면담자료를 분석한 후 다음 개념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음 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참여자의 인턴십 수행과정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상자와의 대화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론적인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암센터 간호부를 방문하여 간호인턴십의 시행 전후 사정에 관한 인터뷰를 거쳤으며, 간호 인턴십 수행기관에서 나온 발행책자와 체험수기, 그리고 신문이나 대중매체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면담장소는 대상자와의 협의 하에 주로 학교 연구실이나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초기의 면담질문은 “인턴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인턴십 과정은 본인에게 어떤 경험이었나?”이었으며, “인턴십에 합격하고 난 후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인턴십 수행 당시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인턴십 수행 후 느낌은 어떠십니까?” 등이었다. 면담횟수는 참여자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였으며, 1회 면담시간은 대부분 70분에서 18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또

한 면담 중에 느낀 점이나 면담과 관련된 상황들을 메모하여 자료 분석에 참조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코딩에서는 필사된 자료를 한 줄씩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중요한 사건이나 활동, 감정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명명하였다.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발견될 때마다 개념들 간의 속성과 차원을 비교하여 개념들을 묶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얻어진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이론적인 포화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여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추가하기도 하였다. 반복적인 코딩과정을 통하여 코딩의 범주가 일부 수정되거나 일부 항목의 경우 범주간의 교차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분석의 범주가 완성되어 4개의 중심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일련의 절차로 연결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중심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감정적 반응들을 연결 지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이 나오도록 한 일련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연결 지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 결과 또는 성과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인턴십에 대해 알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인턴십을 수행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했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후 연구자가 직접 필사과정을 거쳤으며, 필사나 분석과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및 직접 만나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개방코딩한 분석 자료를 질적 연구경험이 많은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념을 연구 대상자 2인에게 보여주고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는 총 14명으로 평균나이는 23.4세, 범위는 23-26세였고, C대 4명, H대 10명으로 남학생 2명, 나머지는 여학생이었다. 수행기관은 국립암센터 6명, 서울아산 병원 4명, 삼성의료원 2명, 국립의료원 1명, 명지대병원 1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이 인턴십을 수행했던 기관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3명은 인턴십 수행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명은 인턴십 참여 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향지원 하였으나 4명은 오히려 참여기관보다 상향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이었다<Table 1>.

3.2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경험에 대한 자료분석은 4개의 범주, 12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범주 1은 '인턴십 참여 동기'이며 우수기관 탐색 기회, 취업관련 혜택 기대, 현실 충격 감소 효과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범주 2는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 과정'이며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업무에의 참여, 정직원 연계성 제고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범주 3은 '경력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이며 생각으로 배우기, 모방하기, 두려움 제거기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범주 4는 '경력에 대한 인식'이며, 목표 설정하기, 지속적인 자기개발, 적합성 진단하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분석된 자료에서 주요내용을 각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범주 1. 인턴십 참여 동기

인턴십에 참여하는 동기를 알기 위하여 어떻게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서를 택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인턴십에 참여 동기는 3가지로 정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우수기관 탐색 기회, 취업관련 혜택 기대, 현실 충격(real shock)감소 효과를 위해서 라고 답하였다. 참여 동기는 연구 참여자당 하나씩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참여자가 두 개 내지 세 개의 참여 동기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인턴십에 참여 동기에 따라 주로 관심 갖는 주제도 달랐으며, 이를 주요 학습 관심사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전공에 흥미를 느끼는지의 여부, 흥미를 느끼거나 적성

에 맞다고 인식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가정배경이 경력과 관련된 주제를 학습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인턴십에 참여하기 전에 경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다양한 배경을 알 수 있었다.

(1) 우수기관 탐색 기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우수기관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영역에는 기업의 문화, 조직의 구조, 일이 수행되는 과정,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의 큰 병원에 취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이왕이면 내가 가려고 마음먹은 병원에서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큰 병원과 작은 병원들의 간호시스템이 어떠한 것이 다른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기에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2, 5, 6, 7, 10, 12, 13)

(2) 취업관련 혜택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인턴십을 통해서 그 기관에 취업가능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인턴십을 하게 되면 취직의 기회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업에 플러스 요인,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인턴십 수료자에게 1차 서류전형 합격 시 2차 면접을 자동합격하게 되는 이점이 있는데.. (1, 2, 3, 4, 6, 9, 10, 12, 13, 14)

전 일년 후 삼성병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인턴십을 하게 된다면 삼성병원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삼성병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여 삼성병원과 코드가 맞는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5)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써넣을 내용이 없어서 '스펙'처럼 써먹을려고 인턴십을 하게 되었고.(8)

인턴십을 함으로써 그 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익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산은 인턴십을 하고서 취직 시 1차 면접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었기에 이런 기회는 꼭 잡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10)

(3) 현실충격 감소 효과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간호에 완벽을 기하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인턴십을 통해 임상간호현장과 이론적 지식 사이에서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하여 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역할이행에서의 겪게 될 현실충격(real shock)을 감소하고자 참여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임상의 실제적인 현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예비간호사로서 일해 본다는 점.(1, 3)

졸업 후에 어느 곳에 취업을 하든지 간에 Real Shock (현실충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 경험해보고자 인턴십에 지원할 마음을 가졌습니다.(4)

신규가 되었을 때 좀 더 빨리 적응하고, 각오를 미리 하기 위해서였습니다.(11, 12, 13)

범주 2.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 과정

연구 참여자가 인턴십에 경력을 탐색하는 과정은 경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조직의 환경과 만나고 학습가능성을 탐색하고, 일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1)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기관의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시 우수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관에서 인턴십을 한다는 내용을 기억해냈고, 주변에서도 예비직원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들이 직업세계에 입문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또한 얼마나 업무에 참여할 가능성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조직적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학습할 가능성에 차이를 보였다

인턴십에 대해 환자, 간호사 모두 존중해주며 많은 것을 배우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즉 저희를 이 병원에 입사할 수도 있는 예비간호사로서의 교육을 해주기에 프리셉터 선생님을 붙여주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실습 시에는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 5, 6)

매일 아침 수색과의 20분씩의 멘토링, 1:1 프리셉터 교육, 팀프로젝트의 접근법 3회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원측에서는 인턴십을 이용하여 병원홍보 플러스

리더십 캠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턴십 참여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간호사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8)

(2) 업무실무 능력 배양

연구 참여자들은 인턴십을 통한 업무 참여와 전공분야 실무 체험을 하게 되면 졸업 후 실무 업무적응도가 높아 간호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원하던 부서에 배정이 되어서 좋았고,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3, 4)

인턴십은 신규간호사처럼 대해 주셔서 과제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경험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6)

응급실을 지원하였으나 중환자실을 배치 받았지만 이번 인턴십으로 ICU에 대해 흥미가 생겼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께 지원계기를 물었더니 기본간호부터 건강사정, 기타 병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호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여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게 배웠는데 다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셨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도 하면서 배웠던 걸 다 써먹어 볼 수 있는 곳이라 진짜 매력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8)

인턴십은 그 병원에 신규간호사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선생님들이 ACTING 위주로 시켜주었습니다.(11)

당연히 3교대 근무가 기억이 남아요. 인턴십 때 데이 이브 나이트 오프 이렇게 진짜 간호사처럼 듀티가 짜여져 하니깐 3교대를 제대로 실감했던 것 같아요. 진짜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각 듀티때 마다 이뤄지는 업무를 알 수 있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12)

인턴십은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여태껏 했던 실습에서 별로 관심도 못받고 '바쁜데 귀찮은 존재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애기'라고 하시면서 챙겨주시고 투약 준비 하는 것부터 수혈환자가 있을 때 수혈하는 방법, 수술 전 환자 준비하는 방법, 수술 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 전산을 확인하는 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환자분 간호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마음가짐, 선생님 감

독 하에 IM 주사와 약물 mix 등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13)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기회가 더 많았고, 간호사선생님들도 저희에게 더 열심히 가르쳐주시려 하셨습니다. 또한 인턴십 학생이라 더 우수하게 보시는 것 같아 더 공부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14)

(3) 정직원 연계성 제고

인턴십을 하는 기관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노력에 의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인턴십을 정직원 채용으로의 연계를 시사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과 인턴 양쪽의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인턴사원=입사내정’이란 공식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인턴사원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채용 시 우대받는다 생각하였다.

인턴십을 함으로써 병원과 개인의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고, 후에 채용 시 그것을 서로가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써는 자신과 병원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후에 있을 스트레스와 이직, real shock를 줄일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 사람과 병원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십은 후에 이 학생이 이 병원에 지원하여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지 저를 ‘교육’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4)

친척이 마치 내가 아산병원이라도 들어간 듯한 과한 반응을 보여서 부담스러웠죠.(8)

그 병원에 지원하기 앞서 미리 병원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익혀 신규간호사로 들어왔을 때 조금은 익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인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11)

선생님 감독 하에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으며, 교대근무도 해볼 수 있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13)

범주 3. 경력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세계 입문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직면함으로써 생각과 행동과 느낌의 학습활동이 일어났다.

(1) 생각으로 배우기

생각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습활동이다. 생각을 통한 학습결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느낌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끝나기도 한다. 생각으로서의 학습활동은 차이점 인식, 인식 전환, 다른 대처방법 가정 등으로 나타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호사가 3교대, 업무과다 등으로 실제로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 수 있게 된 경험이었습니다.(1)

이론과는 달리 실제 임상에서는 대상자의 수준이 너무도 높아졌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중심 간호를 제공해야하는 병원의 전반적인 상황과 제가 제공할 역할에 대해 어떻게 하면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5)

내가 과연 이 병원과 맞는 사람일까? 기업병원은 어떻게? 뭐가 좋고 나쁠까? 내가 다른 학교 친구보다 뭐가 뒤떨어질까? 아니면 좀 더 나올까?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할까? 전국각지에서 모였으니.. 궁금했는데 비교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6)

당장의 취업도 취업이지만 이번 인턴십이 간호사로서 내 미래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놓아 취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선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미래 계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간호사로서 가져야할 능력이라고 해서 항상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 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과 ‘나’의 관계에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와 ‘간호사’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지만, “내가 왜 간호사가 되려고 했을까?”보다 “내가 간호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직업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8)

같이 인턴십하는 친구들과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안도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대화를 나누다보면 ‘내가 진짜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난 우물안 개구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덕에 인턴십을 경험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가 가진 장점이 무

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13)

실습 때 가보지 못했던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중환자 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의 변화를 얻은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고요, 또한 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대화하다보니 인턴십 하기 전보다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진? 깨어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13)

일반 실습 때처럼 아직 부족한 지식과 기술이 많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겨내기 위해 더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14)

(2) 모방하기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Preceptor는 Role model로서 인턴십 참여자들을 지지해주고 임상실습을 지도하여 간호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질문이나 모방을 통하여, 인턴십 동기들의 모인 조직을 통해 학습활동에 참여하였다.

지방대라서 수도권 학생은 다를까? 혹은 내가 확언히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 이외 다른 학생들은 나랑 수준이 고만고만한 느낌 이었고.(1, 2, 4, 6, 9).

인턴십 후 많은 업무를 막힘없이 하는 간호사를 보고 '역시 최고의 병원에 최고의 간호사가 근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role model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2)

NICU를 실습하면서 근거중심실무를 행하며, 현재를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임상 간호 중에도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하며 간호를 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며 내가 임상에 나가서 저러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5)

프리셉터 선생님들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옆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내가 취업하면 저렇게 친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간호사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7, 10)

'간호사는 진짜 전문직이구나.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 란 게 맞구나. 대상자들이 진짜 간호사에게 많은 의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나도 선생님들처럼 똑똑하고 당황하지 않고 일 처리도 잘하고 진짜 케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가 되고 싶

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13)

간호사에 대한 더 큰 포부와 열정을 안겨주었고 간호 사선생님들처럼 빨리 내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호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경험이었습니다.(14)

(3) 두려움 제거 기회

생각과 행동으로서의 학습활동은 연구 참여자의 느낌과 함께 이루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간호사로서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실습할 때는 그냥 업무보조 알바생으로 쓰이는 느낌이었지만, 인턴십은 병원 측에서 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 라 미래 간호사로서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더 많이 가르쳐 주려 하시고, 매 출근마다 그날그날의 실습 소감을 나누면서 좀 더 심리적인 것들도 많이 고려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6, 8, 9)

인턴십을 다녀오고 꼭 저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고 취업하고자 토익성적을 만들어 나갔고, 결국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큰 용기를 내어 지원도 하였습니다. 아마 인턴십을 안했다면 내가 합격할 수 없는 큰 병원이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큰 병원일수록 간호사들 간에 태우는 것이 심해서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대형병원에 지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간호기술을 익히고자 노력을 하면 내 노력만큼 주변에서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0)

범주 4. 경력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조직 환경 내에서 인턴십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통하여 배웠다. 배움의 결과는 미래에 일할 직장과 미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목표설정 하기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기관은 그 자체로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였다.

간호사는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취과 대학원을 졸업하신 선생님들께서 대화하시는 것과 저를 교육해주시는 것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저 또한 그쪽으로 저의 진로를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4)

평상시 교과서 나온 대로만 공부하고 암기해서 적용했다면, 실제업무를 해봄으로써 그 간호가 행해져야 하는 각각의 원리를 들어 근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답부터 찾기도 원리 등을 생각해보는 점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6)

실제로 간호사선생님들 다들 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일의 만족도도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취업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향후 내 미래를 위해 가고 싶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최근 불거진 간호등급제 때문에 단순한 RN으로 있기엔 구별이 없겠다 싶어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좀 더 공부해서 내 커리어를 쌓아놔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8)

간호사는 정말 환자를 간호하는 일 뿐 아니라 병원의 환경을 만드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병동마다 간호사들의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환경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간호사가 되면 나의 담당 환자들이 생기는 것도 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가 되면 책임감이라는 것이 나를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게 할 것 같아요.(12)

수간호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관계, 간호사선생님들의 관계, 환자와 간호사선생님들의 관계, 병원의 시스템 등 실습했던 병원 중 제일 맘에 들었고 인상 깊은 병원이었습니다.(14)

(2) 지속적인 자기개발하기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나 계획은 연구 참여자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인턴십은 저를 성숙하게 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좋은 병원도 좋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항상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5)

예비간호사로서의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토익에 좀 더 집중하여 토익점수를 만들고, 기본간호를 위해 실습도 열심히 하여 제가 인턴십했던 병원에 입사하는 것입니다.(7)

간호사가 돼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학습을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11).

전문성 띄는 병원인 만큼 나도 전문성 띄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12)

(3) 적합성 진단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인턴십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자신의 수행능력 소지 여부 및 부족한 부분의 발전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자신의 강·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분석되었다.

인턴십 전에는 막연하게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 병원과 나의 성향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턴십 후에는 저의 성향과 일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를 성장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5)

실제로 인턴십을 경험해보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봉, 시설 등만 보고 목표 병원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자기에게 맞는 병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6)

가고 싶다고 생각한 기업병원을 실제로 내부에서 경험해봤더니 글로 읽는 것보다 진짜 뭐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취업보다 내가 가고 싶은 부서, 취업 이후 간호사로서의 미래상을 생각해 볼 기회여서 좋았습니다.(7)

인턴십을 통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이들보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다른 이들의 얘기나 내가 들어가고 싶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생각이 커짐과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내적 상태가 약점인 것 같아

요(8)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들지만 특히 남자로서 여자무리에 뛰어들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11)

인턴십을 경험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13)

3. 논의

간호대학생의 융합프로그램으로서 인턴십 체험은 4가지 범주인 인턴십 참여 동기,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과정, 경력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 경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된 4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인턴십 참여동기로 우수기관 탐색 기회, 취업관련 혜택 기대, 현실충격 감소의 3가지 주제가 포함되었다. 인턴십 참여 동기는 사회생활 경험, 전공분야 실무체험, 대안 분야 탐색,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진단을 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세계에 대한 사회경험과 실무체험을 통해 그 기관을 탐색하려는 동기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인턴십 경험이 성공적인 커리어우먼의 외양과 이미지에 집중하는 피상적인 직업관에서 벗어나 직업관 확립을 통해 진로결정도를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 중요한 참여동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8]. 그러나 일반 직업에 대한 인턴십 대상자와는 달리 간호대학생의 경우 분야가 주로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업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구체적 기대감이 다른 직종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해외인턴십의 융합 형태인 해외 단기연수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삶의 태도가 변화하여 성숙하게 되었으며 해외의료기관 취업도 고려하는 변화도 일고 있다[19].

또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간호사들은 실제 업무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좌절감이 높아 직무스트레스의 경험한다고 하였으며[20], 이러한 신규간호사의 반응을 ‘현실충격’이라 표현하였고 이런 현실 충격을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8개월에

서 12개월 걸린다고 하였다[21]. 이렇게 실무와 학교 교육의 차이점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여 현실 충격을 감소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추후 취업 후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간호인턴십이 취업병원 선택과 신규간호사의 사회화를 도와주고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15].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인턴십 경험($p=.041$)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인 인턴십 경험보다 학생실습 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직업관 확립과 성격과 특성에 맞는 부서배치가 신규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도 있어[16], 추후 인턴십의 조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 과정’으로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업무실무능력 배양, 정직원 연계성 제고의 3가지 주제가 포함되었다.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 과정으로 직업세계 입문을 통해 조직 내 인간관계, 업무를 통한 능력의 향상,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조직 차원의 배려를 기대하는 것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으며[17], 여대생의 인턴십 과정에서도 조직에서의 인간관계와 조직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22]. 본 연구에서도 멘토링, 프리셉터쉽, 팀프로젝트 접근법 등을 이용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관찰자가 아닌 조직 구성원의 일부로 느끼는 과정을 통하여 소속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제도가 임상실습지도자 활용모델에 비해 실습지도와 실습환경영역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턴십 제도를 도입했던 병원 간호사가 동료의식으로 간호학생을 대하고 성의 있게 실습 지도를 해주고 바람직한 실습 환경을 조성해주고 배려해준 결과라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4]. 조리학 전공 대학생의 인턴십이 의사소통, 인간관계기술 등 조직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배우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3]. 이상의 연구를 통해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미래 구성원으로 동일시해야 인턴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겠다. 인턴십 제공기관이 어떤 업무를 주었느냐에 따라 업무의 질과 양이 달라지며 인턴십 참여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계속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스스로 학습의 성과와 효과도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본 연구의 참여자도 원하던 부서에서 충분한 적응을 해보았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이후 업무적응에 영향을 주어 간호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인턴십 정책에 대한 반응은 체계적이라 대답한 사람은 1/3에도 못 미쳤으며 공식적 프로그램 및 사전 교육이 있는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정직원 채용으로의 연계성 여부가 조직 구성원과 인턴의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으며[17], 본 연구에서도 정직원 연계성 여부가 인턴십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의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턴십 제공기관의 공식적 프로그램의 홍보 및 제공, 평가결과가 우수한 인력 채용과 유지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 범주는 ‘경력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으로 생각으로 배우기, 모방하기, 두려움 제거기회의 3가지 주제가 포함되었다. 인턴십 기관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생각, 행동, 느낌으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17],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이 과거, 현재의 경험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느끼고, 사고를 전환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으로서의 학습은 질문, 의견제시 같은 대화를 통하여 관찰 후 따라하는 모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생각과 행동의 학습활동은 동시에 느낌이 함께 이루어져 부서에 대한 소속감이 클수록 학습기회가 많아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어 문제 상황에 더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보다 직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도 하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네 번째 범주는 ‘경력에 대한 인식’으로, 목표 설정하기, 지속적인 자기개발, 적합성 진단하기의 3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인턴십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의 직장과 자신의 이미지를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깨닫고 차이점 극복을 위해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를 경험하는 단계이다. 현재 나의 강점과 약점을 깨닫고 위해 전문가인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현장체험이 연구 참가자의 미래직업관 형성과 자아상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24,25].

자발적인 학습경험을 통한 지식의 증가, 대인관계 기

술의 발달로 인한 소속감의 증진,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직업관 변화 및 자기성장, 학생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구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융합프로그램으로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간호대학생의 체험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융합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체험은 인턴십 참여동기, 인턴십을 통한 경력탐색과정, 경력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 경력에 대한 인식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효과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인턴이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소속감 증진이 학습효과에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링, 프리셉터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차원의 지원으로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정직원 채용, 전담부서 지정 등이 학습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체험에 대한 연구는 처음이지만 인턴십 제도는 1996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시행되었고, 취업과 연계되어 신규간호사의 적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관리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간호영역에서의 인턴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인턴십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취업 후 신규간호사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의 인턴십 제도에 대한 효과연구 및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융합프로그램으로 인턴십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인턴십 체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턴십 참여자의 신규간호사 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습방법에 따른 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Participants | age | sex | School | Institutions | Dept | Period | Employment agencies |
|--------------|-----|-----|--------------|-------------------------|---------------------------------------|-----------------|--|
| 1 | 23 | f | C university | National Cancer Center | Uterine cancer Center | 2012. 7/1-7/13 |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
| 2 | 23 | f | C university | Asan Medical Center | Digestive surgical ward | 2012. 2/20-2/24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 3 | 23 | f | C university | National Cancer Center | Prostate Cancer Center | 2012. 7/1-7/14 | Korea University Hospital |
| 4 | 23 | f | C university | National Cancer Center | Anesthesia recovery room | 2012. 7/1-7/14 |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
| 5 | 23 | f | H university | Samsung Medical Center, | NSICU/ ENT ward | 2011. 7/4-7/15 | Inha University Hospital |
| 6 | 25 | m | H university | Asan Medical Center | Anesthesia recovery room | 2012. 1/28-2/1 | |
| 7 | 23 | f | H university | Samsung Medical Center | Operating room /delivery room | 2012. 7/9-7/20 | Seoul St. Mary's Hospital |
| 8 | 23 | f | H university | Asan Medical Center | Emergency ICU | 2012. 1/28-2/1 | Asan Medical Center, |
| 9 | 23 | f | H university | National Medical Center | Surgical / medical ward | 2012. 7/16-27 | National Medical Center |
| 10 | 23 | f | H university | Asan Medical Center, | Colorectal cancer / liver cancer ward | 2012. 2/20-2/24 |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
| 11 | 26 | m | H university | Myongji Hospital | ICU | 2011. 7/2-7/13 | Myongji Hospital |
| 12 | 24 | f | H university | National Cancer Center | Breast cancer, thyroid cancer center | 2012. 7/1-7/13 | National Cancer Center |
| 13 | 23 | f | H university | National Cancer Center | Lung cancer surgical ward | 2012. 7/1-7/13 | National Cancer Center |
| 14 | 23 | f | H university | National Cancer Center | Lung cancer center | 2012. 7/1-7/13 | Korea University Hospital |

〈Table 2〉 A Category for Career Search Process and Career Awaren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rough Internships

| category | theme |
|---|---|
| Participation Motivation internships | Excellent organization search opportunities |
| | Employment-related benefits expected |
| | Hope the real shock reduction |
| Career Exploration process through internship | Become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
| | Practical capacity building work |
| | Increase full-time connectivity |
| Various learning for career preparation | Learning to thinking |
| | To imitate |
| | Opportunity to remove the fear |
| Awareness of career | To set goals |
| | To do Continuous self-development |
| | To diagnose Compatibility |

REFERENCES

- [1] Johnson, J. L., "Nursing science: basic, applied, or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art of nursing", *Advanced in Nursing Science*, Vol. 14, No 1, pp. 7-16, 1991.
- [2] Kotecki, Catherine Nuss, "Nursing internship: Taking a second look",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23, No. 5, pp. 201-205, 1992.
- [3] Hospital Shinbo, 1995.
- [4] Nurse Internship Evaluation Report, Asan Medical Center reports, unpublished, 1996.
- [5] E. B. Le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the global nursing short-term internships" *Dailymedi*,

- 2009.
- [6] J. H. Jeo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more than half of employment... 'overseas internship' big performance" The Kukmin Daily, 2010.
- [7]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2014-University College Global Field Practice Plan, Seoul, 2014.
- [8] Hughes, R. B., Allen, R. V., Cummings, H., "The nurse extern practicum : A New Partnership Between Educational and Service", Journal for N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Vol. 9, No. 3, pp. 118-121, 1993.
- [9] Rgenthal, C. H., Connors, C., "Pediatrics/Neonatal graduate nurse internship : a collaborative effort" Pediatric Nursing. Vol. 15, No. 2, pp. 194-196, 1989.
- [10] National Medical Center, "Clinical nurse Recruit internship", 2013.
- [11] Beck, J. E., Halim, H., "Undergraduate internships in accounting what and how do singapore interns learn from experience", Account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51-172, 2008.
- [12] E. H. Park, H. R. Park, H. S.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Korea Convergencel Society, Vol. 6, No. 3, pp. 79-86, 2015.
- [13] M. J. Park, "A search for possibilities of learning through internship in korean public schools : Based on the Met High School",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28, No. 1, pp. 21-44, 2007.
- [14] H. S. Kim, H. S. Yoon, O. W. Kim, "A comparison of the internship and preceptorship o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 Korea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pp. 217-228, 2001.
- [15] Myoung-Soon Joo, "Assessment on the nursing internship",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996.
- [16] Hye-Lim Park, "Factor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of new nurse",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2011.
- [17] Kyoung-Mi Lee, "A qualitative study on process of career exploration and perception of future career during participating internship",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1.
- [18] S. Y. Jang, W. J. Shim, B. R. Lee, "How do internship experiences affect the job prepar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9, No. 1, pp. 1-31, 2006.
- [19] W. H. Moon, Y.J. Kim, "Nursing Experience of Major Converged Short-termStudents Study Abroad Program", Journal of Korea Convergencel Society, Vol. 6, No. 2, pp. 1-11, 2015.
- [20] S. W. Lee, "Nursing and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3, No. 4, pp. 25-29, 1983.
- [21] Schmalenberg, C, Kramer M., "Coping with reality shock : the voices of experience", Wakefield, Mass, Nursing Resources. 1st ed. 1979.
- [22] S. H. Kim,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internship experienced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CNU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Vol. 32, No. 1, pp. 1-26, 2011.
- [23] H. H. Jung, H. S. Yoon,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with internship program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studie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Vol. 20, No. 3, pp. 299-309, 2004.
- [24] Taylor, M. S., "Effect of college internships on individual participa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20, pp. 393-401, 1988.
- [25] Brooks, L., Cornelius, A., Greenfield, E., Joseph, R., "The relation of career-related work or internship experiences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en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6, pp. 332-349, 1995.

저자소개

오 금 숙(Geum-Sook Oh)

[정회원]



- 1987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2011년 2월 : 중앙
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초빙연
구원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조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질적연구

이 미 경(Mi-Kyung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관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
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중
- 2011년 3월 ~ 현재 : 한중대학
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 질환 관리, 갈등관리, 질적연구